

##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이 동 석(한국교원대학교 교수)

### < 차 례 >

- I. 서론
- II. 사잇소리 현상의 형성과 문제점
- III. 사잇소리 현상의 대안
- IV. 결론

### I. 서론

사잇소리란 두 형태소 사이에 첨가되는 소리를 말한다.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소리이다 보니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두 형태소 사이에 어떤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떠올리게 된다.

그런데 학교 문법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단순히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으로만 국한하지 않고, 사잇소리 첨가 후 다양한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복합적인 현상이 별도의 음운 현상으로 범주화할 만한 특별한 모습을 보인다면 사잇소리 현상을 하나의 음운 현상으로 다룰 수 있겠지만, 학교 문법에서 다루는 사

잇소리 현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본고는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개념이 국어 문법 및 문법 교육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살피고,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잇소리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서는 주로 음운 현상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이 현상만을 대상으로 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특히 사잇소리 현상에서 다루는 발음들을 학교 문법에서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에 대한 고찰은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본고는 이 부분을 분석함으로써 사잇소리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음운 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한다.

## II. 사잇소리 현상의 형성과 문제점

‘사잇소리’는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문법에서 통용되는 용어이다. 현대국어와 중세국어는 시대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이 두 언어에서 의미하는 ‘사잇소리’의 구체적인 실체가 다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두 언어가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일부 일치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중세국어 문법에서는 대개 지금과 같이 합성어를 이룰 때 두 구성 요소 사이에 첨가되는 음을 사잇소리라고 하지만, 현대국어 문법의 초기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모음을 사잇소리로 보기도 하였다.

- (1) ㄱ, ㄴ과 ㅏ, ㅑ와 ㅓ가 각각 거듭하여서 ㅕ, ㅖ로 되는 일이 있지만(보기: 「사이」(間)을 「새」, 「어버이」(親)를 「어베」, 「보이다」(示)를 「뵈다」라 함) 그 거듭함이, ㄷ, ㄸ, ㅌ가 먼저가고, ㅓ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ㄷ과 ㅏ, ㄸ과 ㅑ, ㅌ와 ㅓ의 사이소리(間音)가

되는 것이다. 따라 이것들을 발음하면, ㅏ, ㅓ, ㅗ가 먼저나고, ㅣ가 나중나는 것이 아니라 ㅏ, ㅓ, ㅗ도 아니요, ㅣ도 아닌, 第三의, 사이소리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이소리의 남이 決코 앞뒤의 다름이 없고, 한결같이 하나로만 날 따름이다. <최현배 1937:30>

ㄴ. ㅏ(오)는 ㅓ와 ㅓ의 사이소리(間音)이니 ㅓ를 내어서, 그 소리를 그치지 아니하고, ㅓ로 옮기어 가면, 그 중간에 ㅏ소리가 되느니라 <최현배 1937:36>

ㄷ. 사이소리되기(間音化). ㅣ 앞에 있는 홀소리가, 그 ㅣ와 서로 닮아서, ㅣ 앞에 있는 그 홀소리도 아니요, 또 ㅣ 그것도 아니요, 그 두 소리의 사이소리 하나로 되는 것은 이미 앞에 말하였거니와 그것도 또한 이 홀소리 끼리의 닮음의 하나로 볼 수가 있느니라. <최현배 1937:103>

최현배(1937:30, 36)은 (1ㄱ)과 같이 중세 국어의 /ai/, /əi/, /oi/로부터 통시적인 과정을 거쳐 도출된 /ɛ/, /e/, /ø/를 사이소리[間音]로 보았으며, (1ㄴ)과 같이 공시적으로 두 모음 사이에서 발음되는 모음을 사이소리[間音]로 보기도 하였다.

특히 최현배(1937:103)은 (1ㄷ)과 같이 (1ㄱ)의 변화를 동화 현상으로 보아 이를 ‘사이소리되기(間音化)’로 명명하고 이를 ‘홀소리 끼리의 닮음’이라는 범주의 하위 요소로 보았다. 이후 이영철(1948:19)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되기’로 분류한 바 있다.

한편 최현배(1937:932~940)에서는 ‘밤갈[밤깎]’이나 ‘넷가[내.까/낼.까]’와 같은 발음과 관련해서는 이를 음운론의 측면보다는 형태론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 경우에는 ‘사이소리[間音]’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 음과 같이 ‘허리가지[腰枝, 接腰辭]’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2) 허리가지(腰枝)는 두 씨의 사이에 들어가야, 그 두 씨를 어울려서, 한 씨로 만드는 일을 하는 씨가지이니, 이에는 다만 ㅏ, ㅓ이 있을 뿐이니라. <최현배 1937:932>

최현배(1937:932~940)에서 허리가지, 즉 접요사로 인정한 대상은 ‘나 못군, 깃발, 뒷간, 낙싯대, 잇몸’ 등에서 분석되는 ‘ㅅ’과, ‘줍쌀, 찹쌀, 휩쓸다, 휩싸다’ 등에서 분석되는 ‘ㅈ’이다. 공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이 단어의 두 구성 요소 사이에 개재되어 있으므로 형태론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단어의 한 구성 요소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sup>1)</sup>. 이후 발행된 이희승(1949a:156), 이희승(1949b:158), 최현배(1968) 등의 문법 교과서에서도 피·사동 접사와 함께 ‘넋가’의 ‘ㅅ’을 삽요어(挿腰語)로 처리하였다.

한편 유창돈(1953), 허웅(1965) 등은 ‘넋가’의 ‘ㅅ’을 음운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유창돈(1953:128)은 두 단어가 합할 때에 윗말의 어세(語勢)가 아랫말에 미침을 막기 위해 단어 사이에 띠 글자를 넣는 것을 사잇소리라 하고, 현대어에는 이런 경우에 사이 ㅅ을 넣어서 표기하지만 고어에서는 사이 ㅅ 외에도 사이 ㄱ, 사이 ㄷ, 사이 ㅂ, 사이 ㅈ, 사이 ㅊ, 사이 ㅍ, 사이 ㅎ 등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허웅(1965)는 현대어의 경우와 고어의 경우에 음성적인 특징이 다르다고 보았다. 허웅(1965:392~393)는 현대어에서 유성음 사이의 소리가 약화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리를 강화하여 된소리로 내는 것과는 달리 15세기의 국어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아랫소리가 된소리로 되지는 않고 그 사이에 무성의 휴식(사잇소리)을 둔 것으로 보았다.

허웅(1965)의 이러한 기술은 현대 국어의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실현되는 경음화된 발음을 사잇소리로 본 것이 아니라 중세 국어의 합성어 형성에서 삽입되는 소리를 사잇소리로 본 것으로, 사잇소리를 첨가의 기제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법 교과서인 정인승(1949:21~22), 정인승(1956:32~34), 정인승(1968:부록13~15) 등에서는 이를 ‘사이 덧소리’로 규정하고 ‘넋가’와 같이

1) 다만, 이때의 ‘ㅅ’과 ‘ㅈ’이 형태소의 지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는데, 이것은 본고의 주된 논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았다.

된소리가 나는 경우, ‘암개’와 같이 거센소리가 나는 경우, ‘참쌀’과 같이  
ㅂ 소리가 나는 경우를 모두 덧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역시 ‘넋  
가’의 ‘ㅅ’을 첨가음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넋가’의 ‘ㅅ’을 첨가음으로 보는 관점은 1960년의 문법 교과서에  
서 더욱 일반화되었다. 이원구·이은문(1966), 이용주·구인환(1967), 이은  
정·한인석(1967), 이을환·이응호·이인섭(1967), 강윤희(1968), 이명권·이  
길록(1968), 이은정(1968), 이을환(1968), 이인모(1968), 이길록·이철수(1979)  
등 이 시기의 많은 교과서에서 음의 첨가 현상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는데,  
일례로 이명권·이길록(1968:30~31)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다음 예와 같이, 발음을 뚜렷하게 하기 위하여, 두 말이 결합되어 하  
나의 단어로 된 말, 곧 복합어의 사이 따위에 어떤 소리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소리의 덧붙임(音의 添加)이라고 한다.

“ㅅ” 소리의 덧붙임 : 뒷간, 좇불, 냇물, 콧등, 담뱃대  
“ㅂ” 소리의 덧붙임 : 땀쌀, 참쌀, 좁쌀, 입쌀, 접때  
“ㅎ” 소리의 덧붙임 : 수캐(수+ㅎ+개), 암개, 수컷, 암탉  
“ㄴ” 소리의 덧붙임 : 담요(담뇨), 콩엿(콩녘), 낫일(낫닐)  
“ㄹ” 소리의 덧붙임 : 물약(물략), 꿀엿(꿀렛), 솔잎(솔ړ)

이 중 ‘ㅂ’과 ‘ㅎ’의 첨가는 통시적인 현상으로서 지금은 화석화된 단어  
에서만 실현되고, ‘ㄹ’의 첨가는 ‘ㄴ’이 첨가된 후 유음화 현상이 적용된  
결과로서 첨가 현상으로만 보면 ‘ㄴ’의 첨가에 포함되므로, 결국 공시적으  
로 인정할 수 있는 첨가 현상은 ‘ㅅ’의 첨가와 ‘ㄴ’의 첨가이다.<sup>2)</sup> 이처럼  
1960년대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넋가’의 ‘ㅅ’을 음이 첨가되는 것으로 보  
았다.

2) 합성어의 형성을 공시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모든 합성어가 어휘부에 등재되어 있  
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합성어를 통시적인 산물로 보지 않는 것  
이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의 관점에 따라 단어 형성 과정을 공시적인  
것으로 기술한다.

그렇다면 ‘넷가’의 둘째 음절이 경음화되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다음의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때 도출되는 경음이 음의 첨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이하 밑줄은 필자).

- (4) ㄱ, ㄷ, ㅌ, ㅍ, ㅊ, ㅅ, ㅈ, ㅊ, ㅍ, ㄴ, ㄹ, ㅁ, ㅂ, ㅅ, 모음 아래에서 된소리로 난다. 이런 것을 된소리되기[硬音化]라 한다.

1. ‘ㄱ, ㄷ, ㅌ, ㅍ, ㅊ, ㅅ, ㅈ, ㅊ, ㅍ’ 아래에서(예는 몇 개만 든다)  
먹고>먹꼬, 믿고>믿꼬, 업고>업꼬, 잊고>잊꼬,  
잊고>잊꼬, 쫓고>쫓꼬, 깊고>깊꼬(이하 생략)
2. 울림소리의 자음 ‘ㄴ, ㄹ, ㅁ, ㅂ, ㅅ’ 아래에서,  
간국>간꾸, 들것>들꺄, 곰국>곰꾸, 장국>장꾸
3. 모음 아래에서,  
뒤간>뒤간, 코등>코똥, 초불>초뿔, 차쌔>차쌔, 기와장>  
기와짱

이것은 사이시옷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글자로 쓸 때는 사이시옷 ‘ㅅ’을 붙여서 쓴다. 된소리되기의 경우는 동화와는 반대로 異化의 성격을 띤 것으로 본다.

#### ㄴ. 사이시옷

코+날 →코날<콘날, 내+물 →넷물<넌물  
뒤+간 →뒹간<뒤간, 되+박→뒹박<되박

이와 같이, 두 말이 겹쳐서 된 말[複合語] 사이에 붙어서, 뒷말의 끝소리가 앞 말의 첫소리에 미치는 소리이음의 영향을 똑 끊거나, 아랫 말의 첫소리가 까닭 없이 된소리로 남을 표시하는 ‘ㅅ’ 소리를 사이시옷이라고 한다.

- ㄷ. 복합어의 형성에서 이른바 ‘사이 ㅅ’이 들어가면 경음화는 예외 없이 일어난다.

코스등 → 꼬똥    비스자루 → 비짜루    고기스국 → 고긴국  
 { 나무스집 → 나문쩍 (나무를 파는 집)  
 { 나무 집 → 나무집 (나무로 만든 집)

(47)은 이용주·구인환(1967:43~44)의 내용으로서 [뒤깁], [코똥] 등의 된소리 발음이 사이시옷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용주·구인환(1967:46)에서 ‘국어과>국엇과, 내가>넋가’를 사이시옷이 첨가되는 현상으로 기술한 것과 연관시키면, 결국 [뒤깁], [코똥]과 같은 발음이 ‘ㅅ’이 첨가된 후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분석했음을 알 수 있다.

(48)은 이은정·한인석(1967:33~34)의 내용으로서 음운 첨가의 한 유형으로 사이시옷을 든 것이다. ‘뒤+깁 → 뒷깁<뒤깁’이나 ‘코+날 → 콧날 <곤날’과 같은 기술 내용을 통해 [뒤깁]의 된소리나 [곤날]의 종성 ‘ㄴ’이 사이시옷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을 알 수 있다. (49)은 김완진·이병근(1979:164)의 내용으로서 ‘사이 ㅅ’에 의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1960·70년대의 문법 교과서들은 ‘ㅅ’의 첨가 현상과 그에 따른 경음화 현상을 구별하여 기술하였다. ‘사잇소리’와 ‘사이시옷’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한 점은 아쉽지만, 음운 현상과 관련해서는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것과 이 사잇소리에 의해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였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사이시옷 표기가 첨가된 음이 아니라 된소리를 표기하기 위한 기호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일례로 이익섭(1955:170)은 국어의 복합명사에서 그 복합된 두 명사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濃音)를 ‘사이ㅅ’ 혹은 ‘중간ㅅ’ 소리라고 한다면, 음의 첨가보다는 경음화 현상에 초점을 두는 관점을 취하였다.

학교 문법에서는 2차 교육과정의 문법 교과서인 허웅(1968:162)에서 처음으로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취하

였는데, 이는 그동안 학교 문법에서 ‘ㅅ’의 첨가 현상과 그에 따른 경음화 현상을 구별하였던 일반적인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었다.

허웅(1968:156)은 하나의 형태소가 그 놓이는 자리에 따라서 꼴이 바뀌는 것을 ‘소리의 변동’이라 정의하고, 그 하위 요소로 ‘귀착, 당소리 이어바뀔-필연적, 당소리 이어바뀔-임의적, 구개음화, ‘이’ 소리 치닿음-임의적, 소리의 내리닿음과 치닿음, 축약, 줄어짐, 사잇소리, 된당소리, 모음 조화를 들었다.

이러한 유형 분류는 첨가 현상이 빠져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허웅(1968)은 기존에 첨가 현상으로 보았던 예들 중 일부를 떼어 내어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문법 설명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한 해석이었다.

- (5) **사잇소리** 앞의 형태소리가 울림소리로 끝나고, 뒤의 형태소가 안울림의 예사소리로 시작될 때에는,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일이 있다. 이것을 사잇소리 현상이라 한다.

예 : 산+길 → 산길  
 산+불 → 산뿔  
 나루+배 → 나룻배 → 나루뺨  
 코+등 → 콧등 → 코똥  
 산+새 → 산새

뒤의 형태소가 /ㄹ, ㄴ, ㄷ/ 따위로 시작될 때에는, /ㄴ/ 또는 /ㄴㄴ/이 덧난다.

예 : 대+잎 → 댕잎 → 댕뉘  
 아래+이 → 아랫이 → 아랜니  
 집+일 → 집일 → 집닐  
 술+잎 → 술잎 → 술뉘 → 술릴  
 물+약 → 물약 → 물낙 → 물락



아래 형태소가 /ㄴ, ㄹ/으로 시작될 경우에는, /ㄴ, ㄹ/을 겹치는 일이 있다.

예 : 코+날 → 콧날 → 콘날  
 배+멀미 → 뱃멀미 → 뱀멀미  
 이+몸 → 잇몸 → 임몸

위와 같이 허웅(1968:162~163)은 울림소리 뒤에서 안울림소리가 경음화되는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 규정하고 아울러 ‘땃[땀]’이나 ‘콧[콘]’과 같은 단어의 발음도 사잇소리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이 시기의 다른 문법 교과서에서 사잇소리를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첨가되는 음으로 규정한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허웅(1968:162~163)은 합성어 형성 과정에서 첨가되는 음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음의 첨가 이후에 진행되는 다양한 음운론적인 과정을 포괄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실은 (5)에서 다른 예를 통해 알 수 있다. (5)의 예에서 ‘산길[산깎]’, ‘산불[산뿔]’, ‘나룻배[나루뺨]’, ‘콧등[코똥]’, ‘산새[산썰]’는 사잇소리 첨가 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이고, ‘땃[땀]’, ‘아랫니[아랜니]’는 사잇소리 첨가 후 다시 /ㄴ/가 첨가된 다음 이 /ㄴ/에 의해 선행하는 사잇소리가 비음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친 예이다.

‘집일[집닐]’은 /ㄴ/가 첨가된 후 선행 음절의 종성 /ㅂ/가 이 /ㄴ/에 의해 비음화된 예이고, ‘술잎[술립]’과 ‘물약[물락]’은 /ㄴ/가 첨가된 후 선행 음절의 종성 /ㄹ/에 의해 이 /ㄴ/가 유음화된 예이다<sup>3)</sup>. ‘콧[콘]’은 사잇소리가 첨가된 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이고, ‘뱃멀미[뱀멀미]’와 ‘잇몸[임몸]’은 사잇소리가 첨가된 후 양순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이다.

3) 허웅(1968:163)은 ‘집일’과 ‘술잎’의 최종 발음을 각각 ‘집닐’과 ‘술랴’으로 적었지만, 이는 ‘집닐’과 ‘술립’으로 적어야 옳을 것이다.

이처럼 (5)의 예 중에는 단순히 사잇소리만 첨가된 예가 없다. 이러한 공통점이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웅(1968:162~163)에서 ‘사잇소리 현상’을 단순한 음의 첨가 현상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하다.

그런데 이러한 처리 방식은 몇 가지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첫째, 경음화 현상과 사잇소리 현상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허웅(1968:163)은 ‘먹<sub>ㄱ</sub>먹<sub>ㄱ</sub>’, 듣<sub>ㅁ</sub>보<sub>ㅁ</sub>듣<sub>ㅁ</sub>보다, 먹<sub>ㅅ</sub>먹<sub>ㅅ</sub>와 같이 안울림소리 뒤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된닿소리’로 보고 울림소리 뒤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뀌는 현상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두 현상은 기저의 평음이 표면형에서 경음으로 도출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허웅(1968)에서 다룬 두 유형 외에도 한자어 내부에서의 경음화 현상(예 발<sub>ㅁ</sub>달[발<sub>ㅁ</sub>딸], 발<sub>ㅁ</sub>진[발<sub>ㅁ</sub>쩐]), 관형사형 어미 ‘-ㄴ’ 뒤의 경음화 현상(예 볼 것<sub>ㄴ</sub>겜), 어간 말 비음 뒤의 경음화 현상(예 안<sub>ㄴ</sub>고<sub>ㄴ</sub>안<sub>ㄴ</sub>) 등 다양한 유형의 경음화 현상이 있는데, 이들을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서 별개의 음운 현상으로 분리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허웅(1968)은 유독 울림소리 뒤의 경음화 현상만을 따로 떼어 내어 이를 ‘사잇소리 현상’으로 명명함으로써 기술상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둘째, 사잇소리 현상을 단일한 음운 현상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콧<sub>ㄴ</sub>덜[코<sub>ㄴ</sub>똥]’은 사잇소리 첨가 뒤 경음화 현상이, ‘땃<sub>ㅁ</sub>잎[댄<sub>ㅁ</sub>닙]’은 사잇소리 첨가 뒤 /ㄴ/ 첨가와 비음화 현상이, ‘술<sub>ㅁ</sub>잎[술<sub>ㅁ</sub>립]’은 /ㄴ/ 첨가 뒤 유음화 현상이, ‘콧<sub>ㅁ</sub>날[곤<sub>ㅁ</sub>날]’은 사잇소리 첨가 뒤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로서 모두 하나 이상의 음운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예들이다. 이렇게 여러 음운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단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특히 (5)의 설명을 보면 예사 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ㄴ/ 또는 /ㄴ ㄴ/이 덧나는 현상, /ㄴ, ㄹ/ 앞에서 /ㄴ, ㄹ/를 겹치는 현상은 음운론적인 공통점이 없는 전혀 다른 현상들로서 이들을 하나의 범주로 묶기가 어렵다.

또한 (5)의 현상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중 어느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음운 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는 (5)의 현상이 다른 음운 현상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5)와 같은 현상을 단일한 음운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웅(1968)에서 첫선을 보인 ‘사잇소리 현상’은 이후 국정 교과서에 약간 수정된 상태로 내용이 실리면서 음운 현상으로서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된다. 다음은 최초의 국정 문법 교과서인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1985:165~166)에 실린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기술 내용이다.

- (6)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어울려 합성 명사를 이룰 때, 앞의 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뒷말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초+불(→춣불)→[춣불]	배+사공(→뱃사공)→[배싸공]
밤+길→[밤길]	봄+바→[봄뻐]
산+길→[산길]	촌+사람→[촌싸람]
등+불→[등뿔]	말+소리→[말소리]
길+가→[길까]	물+독→[물뚝]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 한다. 이 때, 만약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 있으면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위에 보인 ‘춣불, 뱃사공’ 같은 것이 그러한 보기다. 그런데, 이 현상에는 예외가 많아 다음과 같은 합성 명사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4) 이진호(2009:557)는 음운 교육을 새롭게 제안하면서 사잇소리는 소리가 바뀐다는 점에서는 음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문법론적 정보, 의미론적 정보가 추가될 뿐 아니라 경향성만 있을 뿐 규칙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잇소리’를 일반 음운 현상과 분리하여 ‘대치, 첨가, 탈락, 축약’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명백하게 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이라면 아무리 여러 문법 정보가 관여하고 규칙화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음운 현상의 분류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래+기름→고래기름      기와+집→기와      밤+송이→밤송이  
 은+돈→은돈              콩+밥→콩밥              말+방울→말방울

또, 말에 따라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

김+밥→~~김밥~~ 또는 [김뺨]              물+거품→~~물거품~~ 또는 [물꺼품]

어떤 때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있고 없음에 따라 뜻이 분화되기도 한다.

나무+집→~~나무집~~(나무로 만든 집)  
 나무+집→~~나뭇집~~→[나무집](나무를 파는 집)

앞의 말이 모음으로 끝나 있고, 뒤의 말이 ‘ㄱ, ㄴ’으로 시작되면 ‘ㄴ’ 소리가 덧나는 일이 있다.

이+몸(→잇몸)→~~인몸~~      코+날(→콧날)→~~콘날~~  
 뒤의 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ㅀ’로 시작될 때에는 ‘ㄴ’이 하나 혹은 둘이 겹쳐 나는 일이 있다.

집+일→~~집닐~~→[집닐]      부엌+일→~~부억닐~~→[부엌닐]  
 장+앞→~~장납~~              논+알→~~논닐~~  
 물+약→~~물낙~~→[물락]      술+앞→~~술닐~~→[술랍]  
 아래+이→~~아랫니~~→[아랫니]→~~아랜니~~

한자(漢字)가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에도 이러한 사잇소리 현상이 있다.

초점(焦點)(→촛점)→~~초점~~              외과(外科)(→외과)→~~외파~~  
 물가(物價)→~~물가~~

그러나, 한자어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말이 많다. 다

음과 같은 말들은 사잇소리 현상이 있는 것처럼 발음해서는 안 된다.

방법(方法)

고가(高架) 간단(簡單)

허웅(1968)은 ‘사잇소리 (현상)’을 ‘소리의 변동’의 일종으로 보았지만, 4차 문법 교과서인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1985:165~166)에서는 다음과 같이 ‘음운의 변동’에 ‘음절의 끝소리, 자음 동화, 구개음화, 모음 동화, 모음 조화, 음운의 축약과 탈락, 된소리되기’를 포함시키고 ‘사잇소리 현상’은 별도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7) ‘말소리’ 단원의 하위 항목

1. 국어의 음운
2. 모음과 자음 - (1) 모음, (2) 자음
3. 소리의 길이
4. 음절
5. 음운의 변동 - (1) 음절의 끝소리, (2) 자음 동화, (3) 구개음화, (4) 모음 동화, (5) 모음 조화, (6) 음운의 축약과 탈락, (7) 된소리되기
6. 사잇소리 현상
7. 어감의 분화

위와 같은 유형 분류는 ‘사잇소리 현상’을 음운의 변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잇소리 현상의 성격을 매우 불분명하게 만든다. (6)의 기술 내용과 (7)의 분류 체계는 5차 문법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며, 6차 문법 교과서에 이르러 분류 체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진다.

(8) ‘말소리’ 단원의 하위 항목

1. 음운과 음절 - (1) 음성과 음운
  - (2) 음운의 체계
    - ① 모음, ② 자음, ③ 소리의 길이
  - (3) 음절

2. 음운의 변동 - (1) 음운의 변동 현상

① 음절의 끝소리 규칙 ② 자음 동화, ③ 구개 음화, ④ 모음 동화, ⑤ 모음 조화, ⑥ 축약과 탈락, ⑦ 된소리되기

(2) 사잇소리 현상

이전의 국정 문법 교과서와는 달리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운 변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9)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 위치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는 동화 현상,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축약되거나 어느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등이 있다.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 연구소 1996:29>

(8)과 (9)를 종합해 보면 음운 변동의 유형으로 첨가 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잇소리 현상을 ‘음운의 변동’의 하위에 두면서도 정작 ‘음운의 변동 현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매우 기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8)에서는 ‘음운의 변동’을 ‘음운의 변동 현상’과 ‘사잇소리 현상’으로 나누었으나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변동 현상’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9)의 설명은 ‘음운의 변동’에 대한 것이지만, 이 설명 중에는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어 사실상 ‘음운의 변동 현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는 교과서에서 ‘음운의 변동’과 ‘음운의 변동 현상’이 어떻게 다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9)의 설명은 7차 문법 교과서에 이르러서 다음과 같이 바뀐다.

- (10) 음운의 변동에는 어떤 음운이 형태소의 끝에서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교체(交替), 한쪽의 음운이 다른 쪽 음운의 성질을 닮는 동화(同化),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축약(縮約), 두 음운 중에

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탈락(脫落), 형태소가 합성될 때에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첨가(添加) 등이 있다.

(9)와 (10)을 비교해 보면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음운의 변동’으로 ‘첨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은 반면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첨가’ 현상을 음운 변동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잇소리 현상’을 비로소 ‘음운의 변동’의 하위 유형으로 인정하는 변화를 보인다.

#### (11) 음운의 변동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2. 음운의 동화 - (1) 자음 동화 (2) 구개음화 (3) 모음 동화 (4) 모음 조화
3. 음운의 축약과 탈락 - (1) 축약 (2) 탈락
4. 사잇소리 현상

(10)과 (11)을 종합해 보면 ‘사잇소리 현상’이 첨가 현상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잇소리 현상의 기술 내용을 보면 이 현상을 첨가 현상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기술 내용은 교육 과정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보여 왔는데, 크게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6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초+불(→촛불)→~~초뿔~~’ 등의 예문 아래에 ‘위의 된소리되기는 사잇소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으며, ‘김+밥(→김밥) 또는 [김뽕], ‘물+거품(→물거품) 또는 [물꺼품]’의 예와 함께 말에 따라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한다고 기술했던 내용이 빠졌다. 아울러 한자(漢字)가 모여서 단어를 이룰 때 일어나는 사잇소리 현상의 예가 ‘초점(焦點)(→촛점)→~~초쩍~~’, ‘외과(外科)(→윗과)→[외과]’, ‘물가(物價)→~~물까~~’에서 ‘셋방(貰房; 세방)→~~세뽕~~’, ‘곳간(庫間; 세방)→~~고간~~’, ‘숫자(數字; 수자)→~~수짜~~’, ‘물가(物價)→~~물까~~’로 바뀌었다.

6차 문법 교과서의 이러한 변화는 허웅(1968:162~163)에서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첨가’를 기술 내용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사잇소리 현상의 본질이 사잇소리 첨가에 이은 경음화 현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코+날(→콧날)→ㄱ콘날’, ‘논+일→ㄴ논날’과 같이 표면형 [ㄴ]의 성격이 서로 다른 예들을 여전히 사잇소리 현상의 예로 제시하고 있어, 이 현상의 음운론적인 성격이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마지막 국정 교과서인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다시 ‘첨가’에 대한 언급이 사라진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과 (11)을 종합해 보면 7차 문법 교과서에서 다른 ‘사잇소리 현상’은 첨가 현상일 수밖에 없는데, 기술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7차 문법 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 국어의 단어 중에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일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에는 받침으로 사이시옷을 적어야 한다. 다음은 이러한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예이다.

춧불(초+불)→ㄷ초뽕

뱃사공(배+사공)→ㄹ배싸공

밤+길→ㄹ밤길

촌+사람→ㄷ촌싸람

등+불→ㄷ등뽕

길+가→ㄷ길까

그런데 이런 현상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뚜렷한 규칙을 아직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비슷한 조건인데도 다음과 같이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합성 명사도 있기 때문이다.

은+돈→ㄷ은돈

콩+밥→ㄷ콩밥

기와+집→ㄷ기와집

오리+밭→ㄷ오리밭

말+방울→ㄷ말방울

고래+기름→ㄷ고래기름



한자(漢字)로 이루어진 합성어의 경우에도 사잇소리 현상이 나타나  
는 일이 많지만, 대부분 사이시옷을 표기하지는 않는다.

초점(焦點)→~~ㅈ~~초점    문법(文法)→~~ㅂ~~문법    물가(物價)→~~ㅂ~~물가

다만, 다음 여섯 개의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적는다.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회수(回數)

한자어의 사잇소리 현상도 규칙성을 찾기가 어려워 다음과 같은 단  
어는 사잇소리를 넣어 발음하면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방법(方法) → [~~ㅂ~~방~~ㅂ~~법](×)      고가(高架) → [~~ㄱ~~고~~ㄱ~~가](×)  
간단(簡單) → [~~ㄱ~~간~~ㄴ~~단](×)      등기(登記) → [~~ㄷ~~등~~ㄱ~~기](×)

합성어를 이룰 때,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ㄱ, ㄴ’으로 시  
작되면 ‘ㄴ’ 소리가 첨가되고,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될 때에는 ‘ㄴ’이 하나 혹은 둘이 첨가되는  
일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도 사잇소리 현상의 하나이다.

잇몸(이+몸)→~~ㅂ~~인몸      콧날(코+날)→~~ㅂ~~콘날  
집+일→집~~ㅂ~~날→~~ㅂ~~집날      부엌+일→부~~ㅂ~~엌날→부엌~~ㅂ~~날  
숨+이불→~~ㅂ~~숨니불      논+일→~~ㅂ~~논날  
콩+엿→~~ㅂ~~콩~~ㅂ~~년      물+약→~~ㅂ~~물~~ㅂ~~낙→~~ㅂ~~물~~ㅂ~~락

두 단어를 한 마디로 이어서 발음할 때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  
나는 경우가 있다.

한 일→~~ㅂ~~한~~ㅂ~~일      옷 입다→~~ㅂ~~온~~ㅂ~~입~~ㅂ~~따  
할 일→~~ㅂ~~할~~ㅂ~~일      잘 입다→~~ㅂ~~잘~~ㅂ~~입~~ㅂ~~다→~~ㅂ~~잘~~ㅂ~~립~~ㅂ~~따  
먹은 엿→~~ㅂ~~머~~ㅂ~~근~~ㅂ~~년

7차 문법 교과서에서는 ‘촛불(초+불)→~~ㅈ~~초뿔’, ‘밤+길→~~ㅂ~~밤길’ 등의 예에서 사잇소리의 첨가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콧날(코+날)→~~ㄷ~~콘날’, ‘숨+이불→~~ㅅ~~숨니불’에 대해서는 ‘ㄴ’이 첨가된다는 점을 밝혔다.

그런데 ‘콧날[콘날]’에서 첨가된다고 본 [ㄴ]와 ‘숨이불[숨니불]’에서 첨가된다고 본 [ㄴ]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12)의 설명에서도 전자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ㄱ, ㄴ’으로 시작될 때 ‘ㄴ’이 첨가되는 것이라 하였고, 후자는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ㅍ’로 시작될 때 ‘ㄴ’이 첨가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전자의 경우에 첨가된 음은 [ㄴ]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콧날[콘날]’은 사잇소리가 첨가된 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 사잇소리가 [ㄴ]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ㄴ]가 첨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 ‘숨이불[숨니불]’은 전형적인 ㄴ 첨가 현상의 예이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 문법 교과서 이래로 국정 문법 교과서에서는 ‘콧날[콘날]’을 ㄴ 첨가 현상이 일어난 다른 예들과 함께 다루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 왔다.

사잇소리 현상은 국어과 교과서의 발행 체제가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바뀐 이후에도 그대로 명맥을 이어 왔다.

<표 1> 개정 『독서와 문법 I』의 내용 분석

출판사	유형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미래엔	첨가	×	○
비상교육	첨가	×	○
지학사	첨가	○	×
천재	첨가	○	×

5) ‘이불’의 고형이 ‘니불’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숨이불[숨니불]’에서 공식적으로 /ㄴ/가 첨가된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교 문법에서는 합성어의 형성을 공식적인 과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고에서도 이에 맞게 설명하도록 하겠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독서와 문법’ 교과서를 검토해 보면 4종 중 2종의 교과서에서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었고 2종의 교과서에서는 ㄴ 첨가 현상만을 다루었다. 사잇소리 현상을 다룬 2종의 교과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첨가 현상으로 분류하면서도 이전의 국정 문법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경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을 모두 사잇소리 현상의 내용으로 다룸으로써 기술 내용과 유형 분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콧날[곤날]’과 ‘잇몸[인몸]’을 [ㄴ]이 첨가된 것으로 본 국정 문법 교과서의 문제점을 여전히 답습하였으며, <천재>의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의 예시로 ‘길개[길까]’와 ‘잇몸[인몸]’만을 제시하여 전형적인 ㄴ 첨가 현상에 해당하는 예를 아예 제시하지 않았다.

<표 2> 2011 개정 『독서와 문법』의 내용 분석

출판사	유형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비고
교학사	첨가	○	×	
지학사	첨가	○	×	
천재	첨가	○	×	
비상교육	이화	○	×	
미래엔	첨가	×	○	학습활동에서 ‘사잇소리 현상’ 언급
창비	첨가	×	○	ㄴ 첨가를 사잇소리 현상의 하나로 봄

2011 개정 『독서와 문법』에서는 6종의 교과서 중 3종이 첨가 현상으로, 1종의 교과서가 이화 현상으로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었고, 2종의 교과서가 첨가 현상으로 사잇소리 현상이 아닌 ㄴ 첨가를 다루었다.

첨가 현상으로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지 않은 교과서의 경우에도 <미래엔>은 학습 활동에서 별도로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었으며, <창비>는 ㄴ 첨가를 사잇소리 현상의 하나로 보았다. 이처럼 사이시옷 현상을 첨가 현상으로 다루지 않은 <미래엔>과 <창비>에서도 ‘사잇소리 현상’을 어

편 식으로든 언급하게 된 것은 ‘독서와 문법’의 음운 변동 관련 성취 기준의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사잇소리 현상’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 (13) 음운의 변동을 탐구하고 올바르게 발음하며 표기하는 생활을 한다.  
음운의 개념과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음운 변동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음운 변동의 유형은 기본적으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구개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사잇소리 현상과 같은 개별 음운 변동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한글 맞춤법과 발음의 괴리를 보이는 자료를 통해 올바른 발음과 표기 생활을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독서와 관련하여 청자나 독자를 위하여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이후 개정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인지 『언어와 매체』 5종 교과서에서는 모두 첨가 현상으로 ‘ㄴ 첨가’를 기술하고 있으며, 사잇소리 현상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 않거나 별도의 추가 설명을 통해 다루는 모습을 보인다.

<표 3> 20015 개정 『언어와 매체』의 내용 분석

출판사	유형	사잇소리 현상	ㄴ 첨가	비고
비상교육	첨가	×	○	
지학사	첨가	×	○	
창비	첨가	×	○	
미래엔	첨가	×	○	‘더 알아보기’에서 사잇소리 현상 언급
천재	첨가	×	○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 언급

<미래엔>의 경우에는 첨가 현상으로 ㄴ 첨가를 기술한 후 ‘더 알아보기

가'를 통해 합성어가 될 때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거나(예) 밤길[밤깁], 냇가[내까/넛까], 초밭[초뿔/촌뿔]) 'ㄴ' 소리가 나거나(예) 콧날[콘날 → 콘날], 아랫나[아랫니 → 아랜니]) 'ㄴㄴ' 소리가 나는 현상(예) 깃잎[깁입 → 깁닙 → 깁닙], 베갯잇[베깁잇 → 베깁닐 → 베깁닐])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는 기존의 사잇소리 현상에서 'ㄴ' 첨가를 따로 떼어 첨가 현상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유형들을 모아 별도로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애초에 성질이 다른 경음화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을 한데 묶어 처리했던 문제점을 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밤길[밤깁], 콧날[콘날], 베갯잇[베깁닐]'과 같이 사잇소리 첨가 후 각각 다른 음운 규칙이 적용된 현상들을 한데 묶어 사잇소리 현상으로 본 점은 여전히 문제가 된다.

<천재>의 경우에는 첨가 현상에 해당하는 음운 현상을 다음과 같이 'ㄴ' 첨가와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 (14) ㄱ. 'ㄴ' 첨가: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형태소 뒤에 단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예) 숨+이불 → 숨이불[숨 : 니불], 맨+입 → 맨입[맨닙],  
한+여름 → 한여름[한너름]

- ㄴ.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 합성어에서 뒤의 예사소리에 'ㄴ' 또는 'ㄴㄴ'이 첨가되는 현상이다.

예) 이+몸 → 잇몸[인몸], 뒤+일 → 뒷일[된 : 날]

이는 기존의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경음화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한 후 나머지 내용을 'ㄴ' 첨가와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잇몸[인몸]이나 뒷일[된 : 날]은 [ㄴ]나 [ㄴㄴ]이 첨가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역시 기존의 사잇소리 현상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사잇소리 현상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집필된 교과서를 통해 ‘ㄴ 첨가’를 따로 떼어 내는 데는 성공했으나, 몇몇 교과서에서 ‘ㄴ 첨가’를 떼어 내고 남은 다양한 현상들을 여전히 사잇소리 현상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잇소리 현상의 정체를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고 말았다.

### Ⅲ. 사잇소리 현상의 대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잇소리 현상은 허웅(1968:162~163)에서 첫선을 보일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이후 문법 교과서에 실리면서 조금씩 내용에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못했다.

사실 사잇소리 현상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잇소리 현상을 해체하는 것이다. 애초에 성격이 다른 여러 현상들을 한데 모은 데다가 기술 내용 자체에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의 개념과 범위를 지금과 같이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봉국(2014)는 교과서에서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며 사잇소리 현상을 아예 ‘대치, 첨가, 탈락, 축약과는 별도로 다른 층위의 음운 현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였으나, 교과서에서 사잇소리 현상으로 다루던 예들을 다른 대안 없이 제외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사잇소리 현상을 일반 음운 현상과는 다른 층위의 음운 현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그대로 둔 것이어서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sup>6)</sup>.

6) 사실 현재로서는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기는 하다. 김봉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잇소리 현상에서 성질이 다른 현상들을 분리해 낸 후 각각의 현상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잇소리 현상에 포함된 다양한 현상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잇소리 현상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5) ㄱ. 개울개[개울까]  
       ㄴ. 냇개[냇까/내까]<sup>7)</sup>  
       ㄷ. 냇물[넉물]  
       ㄹ. 집안일[지반닐]  
       ㅁ. 나뭇잎[나문닙]  
       ㅂ. 솔잎[솔립]

위의 예들은 대부분 사잇소리가 첨가된 후 다른 음운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다. 따라서 사잇소리 첨가 현상과 이후 일어난 음운 현상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어떻게 분리해 낼 수 있을지 살펴보고 하겠다. 이진호(2014:181)는 사잇소리 현상을 크게 경음화 현상과 ㄴ 첨가로 나누고, (15ㄱ)은 경음화 현상의 예로, (15ㄷ)은 ㄴ 첨가의 예로 보아, (15ㄱ)과 (15ㄷ)을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였다<sup>8)</sup>.

그런데 (15ㄷ)을 따로 떼어 내어 ㄴ 첨가 현상으로 분류하면 (15ㄹ)의 ㄴ 첨가 현상과 구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학교 문법에서 이러한 혼란이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이진호

국(2014)도 2009 개정 문법 교과서(『독서와 문법 I』) 총 4종 중 2종의 교과서에서 사잇소리 현상을 다루지 않은 것을 참고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음운 교육의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7) ‘냇가’의 표준 발음은 [내:까/넉.까]이지만, 본고에서는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장단 구별을 하지 않겠다. 다른 단어의 발음도 마찬가지다.

8) 이진호(2014:181)는 (15ㄴ)의 예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2014:207)는 (15ㄷ)을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로, (15ㄷ)을 ‘순수한 음운 현상으로서의 ㄴ 첨가’로 구별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과연 (15ㄷ)에서 첨가되는 음이 /ㄴ/가 맞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문규(2004:255)는 (15ㄱ, ㄴ)의 된소리되기와 (15ㄷ)의 [ㄴ] 첨가가 성격이 전혀 다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하나의 음운 변동에 매여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15ㄱ, ㄴ)의 된소리되기는 뒤에 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꾸지 못하는 음, 즉 모음과 유성 자음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뒤따르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꿀 수 있는 어떤 자음이 첨가된 결과로 볼 수 있고, (15ㄷ)의 비음화는 후속 환경이 비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음 앞에서 [ㄴ]로 바뀔 수 있는 어떤 구강 자음이 첨가된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15ㄱ)의 ‘개울가’와 (15ㄴ)의 ‘넷가’는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두 단어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이 동일한 기제, 즉 사잇소리 첨가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두 단어에 첨가되는 사잇소리가 동일한 음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sup>9)</sup>.

물론 (15ㄱ)에는 표면적으로 첨가되는 음이 없고 (15ㄴ)에는 첨가되는 음이 있다는 차이가 있지만, 전자의 경우에는 음이 첨가되더라도 우리말의 초성과 종성 자리에 자음이 둘 이상 올 수 없다는 제약에 따라, 첨가된 사잇소리가 후행 자음을 경음화시키고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0)</sup>.

이처럼 (15ㄱ)과 (15ㄴ)에서 동일한 사잇소리 첨가가 일어난다면 이들

9) 일반적으로 합성어의 경음화 현상은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예외가 많긴 하지만, 워낙 의미 관계가 다양하기도 하고 이러한 의미 관계에 따라 형성된 합성어의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는 실제 언어생활에서 충분히 출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10) 이관규(2000)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고 (15ㄱ)에는 후두음 [ㄱ], (15ㄴ)에는 [ㄷ]가 첨가된다고 보았으나, (15ㄱ)과 (15ㄴ)의 기제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과 마찬가지로 선행어가 후행어를 수식해 주는 구조를 가진 (15ㄷ)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잇소리가 첨가되었다가 후행어의 초성 비음에 의해 사잇소리가 비음화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이관규(2000), 이문규(2003), 강옥미(2003:504), 박창원(2004), 양순임(2007:273), 신지영(2011:317), 신승용(2013:209), 이화진(2015), 이해숙(2015), 최경봉 외(2017:456)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 (15ㄷ)의 발음을 ㄴ 첨가로 설명하지 않고 사잇소리 첨가 후 비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보았다<sup>11)</sup>.

그렇다면 결국 (15ㄱ, ㄴ, ㄷ)에는 동일한 음이 사잇소리로 첨가된다고 할 수 있다. (15ㄱ)은 사잇소리가 첨가되어 후행 자음이 경음화된 후 자음군단순화 현상에 의해 첨가된 사잇소리가 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15ㄴ)은 사잇소리 첨가와 경음화 현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5ㄷ)은 사잇소리 첨가와 비음화 현상이 순차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15ㄱ, ㄴ, ㄷ)에 공통적으로 첨가되는 사잇소리의 실체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첨가되는 음을 /t/로 보는 견해와 /s/로 보는 견해가 있다<sup>12)</sup>.

11) 오원교(1981)과 이운동(1983)은 ‘넛물’의 발음을 [nɛn-mul]이 아닌 [nɛm-mul]로 보고, 이를 [ㄱ]가 첨가된 후 뒤 첫소리 [m]의 비음성에 동화되어 [nɛm-mul]로 발음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 오원교(1981)과 이운동(1983)은 사잇소리의 본질이 음의 첨가가 아니라 둘째 구성 요소의 초성이 강화되는 현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이러한 해석을 내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원교(1981)은 사잇소리를 뒤 첫소리의 내파가 한 템포 빨리 유발되어서 앞 끝소리의 성유출(聲流出)을 중단되게 할 때 발생하는 조음상의 현상으로 보았고, 이운동(1983)은 사잇소리 표기를 뒤 요소의 표기상의 어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음운으로서는 경음으로 강화됨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다. 그러나 [넛물]과 같은 발음은 비음화 현상과 양순음화 현상의 순차적 적용([넛물] → [넛물] → [넛물])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잇소리가 첨가된다는 것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12) 사잇소리의 본질을 성문과열음 [ʔ] 또는 [ʔ']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전자는 오정란(1988:188), 김정우(1994:113), 이병운(1994) 등에서, 후자는 김정수(1987), 최남희(1995) 등에서 제기되었다. 정밀 표기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일 뿐 사실상 [ʔ]와 [ʔ']이 나타내는 음가는 동일하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국어의 음소가 아닌 성문과열음 [ʔ]나 [ʔ']를 다루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지

김차균(1984)은 15세기 국어의 사이시옷의 기저 음소가 /s/라는 점, 현대 국어 맞춤법에서 ‘ㅅ’을 사용한다는 점,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nac]을 적으라고 하면 ‘낫’으로 적는다는 점을 들어 첨가되는 음의 기저 음소를 /s/로 보았고, 문양수(1997)은 여기에다가 ‘아웃(out)’과 같이 영어의 종성 [t]를 ‘ㅅ’으로 표기하는 점을 더하여 사잇소리의 기저 음소를 /s/로 보았다<sup>13)</sup>.

용어 면에서는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을 이문규(2004:256)는 ‘/ㅅ/ 첨가로, 신승용(2013:206)과 백두현 외(2013:280)은 ‘사이시옷 첨가로, 배주채(2015:168)는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로 명명함으로써 첨가된 사잇소리의 음가를 /s/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다. 양순임(2007:274)은 사잇소리 현상을 합성명사류의 앞말 끝에 음소 /ㅅ/를 첨가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사실 사잇소리는 말소리이고 사이시옷은 문자이므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박창원 1997, 이관규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기에 이끌려 사잇소리를 사이시옷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 연구에서도 용어 면에서 이러한 혼란을 보이거나 음가 설정에서 표기의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보인다.

이와는 달리 유창돈(1963), Kim, Young-Key(1975:163), 이강훈(1976), 김태경(1996) 등은 사잇소리의 기저 음가를 /t/로 보았고, 이관규(2000)은 사잇소리 현상은 문자가 아닌 소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개재되는 사잇소리의 음가를 [t]로 보았다. 용어 면에서도 강옥미(2003:504)은 ‘ㄷ-삽입(t-insertion)’, 신지영·차재은(2003:299), 신지영(2011:315)은 ‘/ㄷ/ 첨가, 최경봉 외(2017:482)은 ‘ㄷ 첨가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잇소리의 음가를 /s/가 아닌 /t/로 보았다. 조재욱(1976)은 용어는 ‘사이시옷 삽입 규칙’이라고 하였지만 이 규칙에서 첨가되는 음은 /t/로 보았다<sup>14)</sup>.

않겠다.

13) 김차균(1991), 김차균(1992)에서는 현대 국어의 ‘ㅅ’을 유기음으로 보아 첨가되는 음의 기저 음소를 /sʰ/로 보았다.

사실 사잇소리의 음가를 /s/로 보든 /t/로 보든 실제 발음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15ㄱ, ㄴ, ㄷ)에서 첨가되는 사잇소리의 음가를 /s/로 볼 경우 평파열음화 규칙이 한 번 더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사잇소리의 음가를 /t/로 보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실제적이다(김태경 1996).

김차균(1984), 문양수(1997)은 중세 국어의 사이시옷이 /s/의 음가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그 당시의 음가를 살려 사잇소리의 음가를 /s/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현대 국어 음운론에서 중세 국어의 발음을 고려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박창원 1997), 중세 국어의 표기법에서 ‘부텃긔 ~ 부텃짜’, ‘긔거 ~ 기꺼’ 등의 이표기가 존재했던 것을 보면 중세 국어의 종성자 ‘ㅅ’의 음가는 /s/가 아닌 /t/로 해석된다(이동석 2020).

현대 국어에서 사잇소리를 ‘ㅅ’으로 표기하는 것은 사잇소리의 기저 음소가 /s/이기 때문이 아니라 표기의 관습을 따르는 것일 뿐이다. 어떤 화자가 [꼬시], [꼬슬], [꼬세]와 같이 발음을 하면서 이를 각각 ‘꽃이’, ‘꽃을’, ‘꽃에’로 적는다고 해서 그 화자의 머리속 기저형을 /꽃/이라고 볼 수 없듯이, 기저형이 반드시 표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잇소리가 [s]로 실현되는 예가 없고 반드시 평파열음화 현상을 거쳐야만 표면형이 도출된다면 (15ㄱ, ㄴ, ㄷ)에서 첨가되는 사잇소리의 음가는 /s/가 아닌 /t/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다면 이 사잇소리가 첨가되는 음운 현상은 ‘/t/ 첨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문법에서는 IPA 기호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학교 문법에 맞게 이름을 붙인다면 ‘ㄷ 첨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5ㄴ, ㄹ, ㄹ)에서 첨가되는 사잇소리는 /ㄴ/이다. /ㄴ/의 첨가는 주지하다시피 앞말에 종성이 있고 뒷말의 첫음이 ‘ㄹ’나 ‘ㄹ’계 이중모음일 때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15ㄴ)에서는 단순히 /ㄴ/만 첨가되고, (15

14) 김무림(1986, 1987)은 사잇소리를 [+obstruent, +anterior, +coronal]로 표현하였다. 이는 음소상으로는 /t/에 해당하지만, 김무림(1986:40)은 /t/나 /t/은 사잇소리의 기저형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음일 뿐, 사잇소리 자체는 추상적인 음운이라고 하였다.

ㅂ)에서는 첨가된 /ㄴ/가 후행 음절의 초성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발음된다.

(15口)의 ‘나뭇앞’은 일반적으로 학교 문법에서 ‘ㄴ’이 둘 이상 첨가되는 것으로 설명한다<sup>15)</sup>. 그러나 ‘앞’의 고어가 과거에 ‘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뭇앞’에 /ㄴ/가 첨가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김태경 1996, 이진호 2005:144). 이에 따라 ‘나뭇앞’의 발음은 과거에 이 단어의 기저형이 /ㄴ/이었던 시기의 발음이 화석화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런데 ‘예삿알, 뒷알’의 경우에는 ‘알’의 기저형이 과거에도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발음을 화석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에 이진호(2021:193)은 이들 발음이 ‘나뭇앞’의 발음에 유추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보다는 ‘뒷골목, 뒷밭, 뒷사람, 뒷정리’ 등이나 ‘예사 사람, 예사 솜씨, 예사 눈빛’ 등의 표현을 통해 ‘뒷’이나 ‘예삿’이 권용적으로 굳어졌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예사말, 예사소리’의 표준 발음이 [예:사말], [예:사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흔히 [예산말], [예사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즉 ‘뒷알’과 ‘예삿알’은 ‘뒤+알’, ‘예사+알’이 아니라 이미 ‘뒷+알’, ‘예삿+알’의 과정을 거쳐 합성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말의 어말 종성이 확보되어 ㄴ 첨가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15) 『독서와 문법 I』에 해당하는 이삼형 외(2012:236), 박영목 외(2012:193)와 『독서와 문법』에 해당하는 이삼형 외(2014:148)는 구체적인 규칙 순서를 제시하지 않은 채 ‘나뭇앞’을 ‘ㄴ’이 둘 이상 첨가된 예로 보았다. 반면 이관규 외(2014a:65)는 ‘나뭇앞’이 ‘나무+앞(나뭇앞)>[나뭇넙]>[나뭇넙]’의 과정을 거쳐 발음 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순서는 학습 활동에서 제시된 것인데, 지도서인 이관규 외(2014b:131)에서는 ‘나뭇앞’에 ‘사잇소리’ 첨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보았으며, 첨가된 사잇소리를 /ㅅ/와 /ㄴ/로 보았다. 이관규(2014a, 2014b)에서 /ㅅ/와 /ㄴ/가 동시에 첨가되는 것으로 본 것은 ‘나무+앞’에서 /ㅅ/가 첨가되기 위해서는 ‘앞’에 초성이 있어야 하고 /ㄴ/가 첨가되기 위해서는 ‘나무’에 종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나뭇넙]이라는 발음이 도출된다. 이에 이를 공식적으로 설명하려다 보니 사잇소리 /ㅅ/와 /ㄴ/가 동시에 첨가된다고 설명을 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나뭇넙]이라는 발음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떻게 보든지 간에 ‘나뭇잎’이나 ‘뒷일’과 같은 단어의 발음은 단순히 공시적인 단어 형성을 통해 도출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 문법에서는 통시적인 정보를 배제한 채 ‘음운 변동’을 공시적인 음운 현상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들 단어의 발음을 설명하면서 통시적인 정보를 언급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학교 문법에서 ‘나뭇잎’이나 ‘뒷일’의 발음이 도출되는 과정을 본질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국어 교육에서 학교 문법이 좀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수 있다면 ‘나뭇잎’이나 ‘뒷일’의 발음이 도출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도 다뤄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기존의 사잇소리 현상은 ㄷ 첨가 현상이나 ㄴ 첨가 현상이 적용된 후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경음화 현상이나 비음화 현상, 유음화 현상이 적용된 복합적인 현상을 의미하였다. 이렇게 복합적인 현상을 단일한 음운 현상으로 규정했던 그동안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잇소리 현상에 포함된 여러 음운 현상들 중에서 첨가 현상과 교체 현상을 분리해 내야 한다.

이 과정에서 ㄷ 첨가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이 자연스럽게 분리된다. 사잇소리 현상을 완전히 해체하지 않고 첨가 현상에 속하는 ㄷ 첨가와 ㄴ 첨가만을 사잇소리 현상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교체 현상들을 사잇소리 현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문규(2003)에서는 이 둘을 한데 묶을 경우 이 두 현상의 음운론적인 환경이 달라 이들 음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거나 학습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첨가’의 하위에 ‘사잇소리 현상’(혹은 /ㅅ/ 첨가)과 /ㄴ/ 첨가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성격이 다르지만 ㄴ 첨가도 사이에 소리가 첨가되는 현상이어서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용어를 통해 ㄷ 첨가만을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된 교훈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교체 현상인 평파열음화 현상과 탈락 현상인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모두 아우르고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자음군 단순화를 분리해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학교 문법에서 아직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 결과 용어와 내용이 잘 연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sup>16)</sup>. 우리말에는 비음화 현상, 유음화 현상, 자음군 단순화 현상 등 음절의 끝소리가 변하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로는 평파열음화 현상의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없다. 이렇게 용어를 통해 그 내용을 쉽게 떠올리지 못할 때 학습자는 단순 암기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라도 용어와 내용이 잘 일치하는 방향으로 문법 기술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용어는 폐기하고 ㄷ 첨가와 ㄴ 첨가를 따로 분리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7)</sup>.

분리된 첨가 현상 중 ㄴ 첨가 현상은 사잇소리 현상으로 묶이기 전부터 다루었던 현상이고, 2015 개정 『언어와 매체』 5종의 교과서에서 모두 첨가 현상의 일종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개별 음운 변동으로 다루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ㄷ 첨가 현상인데, 기존의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현상이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5ㄱ)의 ‘개울가’와 (15ㄴ)의 ‘넷가’의 발음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16) 이해숙(2015)는 학생들에게 ‘평폐쇄음화’라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용어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보았다. 그러나 낫선 것과 어려운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다. 학생들이 ‘평파열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낯설 뿐이지 이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평파열음’이 파열음의 평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면 ‘평파열음화’라는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7) 임지룡 외(2005:128)도 음운 첨가 안에서 ‘ㅅ’ 첨가와 ‘ㄴ’ 첨가를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15ㄴ)의 ‘넷가’는 사잇소리의 첨가가 비교적 잘 포착되므로 ‘ㄷ 첨가’ 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고 (15ㄷ)의 ‘넷물’도 ‘ㄷ 첨가’ 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15ㄱ)의 ‘개울가’는 사잇소리가 표면형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ㄷ 첨가 현상, 경음화 현상, 자음군단순화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문법서 중에서는 구분관 외(2015:73)에서 (15ㄱ)과 같은 예들을 ‘사잇소리 현상으로서의 경음화’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무림·김옥영(2009:423)는 표면형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받침이 있는 경우는 단순히 경음화로 하고 받침이 없는 경우는 ‘ㄷ’ 첨가로 할 수도 있으나, 이것은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하나의 원리를 두 가지 규칙으로 설명하는 셈이므로 언중의 언어 직관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신지영(2011:317)도 선행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는 ‘봄바’는 경음화로 설명하고, 선행 형태소가 모음으로 끝나는 ‘봣물’과 ‘윗웃’은 /ㄷ/ 첨가로 설명하면, ‘봄바’는 합성어 형성에서 경음화가 일어나서 [봄뽀]로 실현되고, ‘봣물’과 ‘윗웃’은 /ㄷ/가 첨가된 후에 음운적 환경에 따라 각각 비음화와 음절화를 통해서 [본물]과 [위돋]으로 실현된다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동일한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개울가’나 ‘봄바’를 단순히 경음화 현상의 한 유형으로 설명하게 되면 복잡한 설명은 피할 수 있지만 음운 현상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학생들이 문법의 본질적인 원리를 학습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사실 (15ㄱ)과 같이 공명 자음 뒤에 장애음이 올 경우에는 그 장애음이 음성적으로 유성음화될 뿐 경음화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김태경 1996)18). 따라서 (15ㄱ)의 예는 경음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사잇소리가 첨가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교수·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점이 잘 전

18)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유성음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잇소리가 첨가된다고 보는 견해를 보인다.

달된다면 학생들도 (15ㄱ)의 예를 단순한 경음화 현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넷가’와 ‘넷물’의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ㄷ 첨가 현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 문법에서 ㄷ 첨가 현상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기존에는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도입하여 ㄷ 첨가 현상을 다루지 않았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사잇소리 현상의 심각한 문제점 중의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문제투성이인 사잇소리 현상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한다면, 사잇소리 현상의 해체와 함께 ㄷ 첨가 현상을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sup>19)</sup>.

유현경 외(2018:126)은 경음화 중에는 순수한 음운 현상과는 달리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부류로 따로 다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며 ‘넷가[네까/넛까]’류와 ‘길가[길까/길까]’류를 예로 들었다. 이러한 예들을 배주채(1996:127)

19) 이진호(2015)는 사잇소리 현상의 적용 여부가 의미 차이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음운 현상의 적용은 의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이 순수한 음운 현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본고에서 분리해 낸 ㄷ 첨가 현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ㄷ 첨가 현상도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음운 현상이 의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ㄷ 첨가의 경우에도 간혹 의미에 따라 ‘큰일[크넛]’과 ‘큰일[큰넛]’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의미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1역행동화의 수의성, 합성어에서의 ㄷ 탈락의 수의성, ‘먹으나[연결형]’와 ‘먹니[종결형]’의 차이, 비음화 현상과 유음화 현상의 경쟁[‘신라[실라]’와 ‘신라면[신나면]’ 등 단순한 음운론적인 환경 만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음운 현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물론 1역행동화와 합성어에서의 ㄷ 탈락은 현대 국어에서 대개 통시적인 현상으로 처리하지만, 이 현상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공식적인 현상으로서 수의성을 보였을 것이고, 이러한 수의성의 국면이 각 현상마다 다르기 때문에 의미의 문제도 이러한 다양한 국면의 일종이라고 본다면 ㄷ 첨가 현상도 음운 현상의 한 부류로 설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유독 ㄷ 첨가 현상이 순수한 음운 현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합성어를 이루는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일 뿐이다.

한편 김정인(2020)은 이진호(2015)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사잇소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조건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잇소리 현상을 일반 음운 변동의 하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이 현상을 독립적인 현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잇소리 현상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은 현재의 모습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은 ‘사이시옷에 의한 경음화’, 배주채(2003:224)은 ‘합성명사와 파생명사에서의 경음화’로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넷가가 [넛까]로 발음되는 현상을 단순히 경음화 현상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렵다. [넛까]의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ㄷ/가 첨가되는 현상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유현경 외(2018)과 배주채(2003)에서는 첨가 현상으로 ‘ㄴ’ 첨가와 반모음 첨가(y 첨가)만을 인정할 뿐 ㄷ 첨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넛까]를 단순히 경음화 현상의 예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ㄷ 첨가 현상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sup>20)</sup>.

이렇게 ㄷ 첨가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을 첨가 현상의 한 유형으로 분리해 내고 나면 나머지 후속 현상들은 이미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경음화 현상, 비음화 현상, 유음화 현상이어서 별도의 음운 현상으로 다루는 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 IV. 결론

지금까지 사잇소리 현상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 문법에서는 ‘넷가’의 발음을 대개 ‘ㅅ’이 첨가된 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허웅(1968:162)에서 사잇소리 첨가 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잇소리 첨가 후 비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ㄴ/가 첨가되는 경우, /ㄴ/가 첨가된 후 유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등을 아울러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명명하면서 학교 문법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 반영되었다.

20) 표준 발음으로는 [내:까]와 [넛:까]가 모두 인정되지만, [내:까]는 [넛:까]에서 무표음인 /ㄷ/가 탈락한 것이므로 [내:까]라는 발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ㄷ 첨가 현상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잇소리 현상은 경음화 현상과 분리해서 보기 어렵다는 점과 단일한 음운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잇소리 현상은 이후 국정 문법 교과서에 반영되면서 학교 문법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내용에 변화를 입었지만, 본질적인 문제점이 개선되지는 못했다.

이에 보고는 현행 사잇소리 현상을 해체하여 첨가 현상과 교체 현상을 분리하고 이들 각각의 음운 현상을 별도의 현상으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할 때 분석되는 음운 현상으로는 첨가 현상에 ㄷ 첨가 현상, ㄴ 첨가 현상이 있고, 교체 현상에 비음화 현상, 유음화 현상, 경음화 현상이 있다. 이 중 나머지 현상들은 이미 학교 문법에서 다루고 있는 현상들이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ㄷ 첨가 현상은 그동안 학교 문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현상이어서 거부감이 들 수 있다. 그러나 ‘넷가’와 ‘넷물’의 발음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음운론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들 발음과 ‘봄비’의 발음과의 관련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ㄷ 첨가 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과거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서로 성격이 다른 음운 현상인 평파열음화 현상과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아우르고 있었지만,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통해 평파열음화 현상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음운 현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의 해체가 불가피하므로 포함되어 있던 각각의 음운 현상을 독립시키면서 새롭게 ㄷ 첨가 현상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21년 8월 15일에 접수하여 2021년 9월 13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21년 9월 14일에 게재를 확정함.

## 참고문헌

- 강옥미(200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 김무림(1986), 사잇소리와 어중경음화의 음운적 기술,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_\_\_\_\_(1987), 사이 ‘ㅅ’의 기저형 설정에 대하여, 『한국어문교육』 2, pp.45-52.
- 김무림·김옥영(2009), 『국어음운론』, 새문사.
- 김미형(2005), 『생활음운론』, 한국문화사.
- 김봉국(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속의 음운변동 내용에 대한 검토, 『우리말연구』 38, pp.29-44.
- 김정수(1987), 한말韓말 목청 터짐소리 /ㄷ/의 실존, 『한글』 198, pp.3-14.
- 김정우(1994), 음운현상과 비음운론적 정보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_\_\_\_\_(1995), 사잇소리의 음운론적 기저형에 대하여, 『경남어문론집』 7-8.
- 김정인(2020),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내 사잇소리 현상 기술과 문제점, 『국어교육』 170, pp.301-329.
- 김태경(1996), 사잇소리의 실현 과정과 개재 원인, 『한국언어문화』 14, pp.135-161.
- \_\_\_\_\_(2005), 『국어의 음운 제약과 음운 변동 현상』 한국학술정보(주).
- 김차균(1984), 현대 국어의 사이ㅅ, 『언어학』 7, pp.67-82.
- \_\_\_\_\_(1991), 현대 국어의 사이ㅅ의 음운론, 『어학연구』 27(3), pp.567-584.
- \_\_\_\_\_(1992), 사이ㅅ의 음운론, 『국어학』 22, pp.191-236.
- 문수미(1989), 현대 국어의 사잇소리에 관한 음성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문양수(1997), 국어의 사잇소리 현상, 『인문논총』 37, pp.63-80.
- 박창원(1997), 사잇소리와 사이시옷( I ), 『이화어문논집』 15, pp.461-482.
- \_\_\_\_\_(2004), 사잇소리의 공식론과 통시론, 『한국(조선)어교육연구』 2, pp.531-565.
- 배양서(1969), 형태소 ‘사이시옷’의 소리값, 『한글』 144, pp.321-342.
- 배영환(2010), 학교 문법의 ‘음운의 변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학연구』 17, pp.95-115.
- 배주채(1996), 『국어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 \_\_\_\_\_(2003),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_\_\_\_\_(2015), 『한국어음운론의 기초』, 삼경문화사.
- 백두현·이미향·안미애(2013),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 신승용(2013), 『국어 음운론』, 역락.
- 신승용·안미애 (2012), 유성 자음 뒤 경음화의 특성 및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인문학』 22, pp.119-140.
- 신지영·차재은(2003), 『우리말 소리의 체계』, 한국문화사.
- 신지영(2011),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교양.

- 신현호(2017), 국어 어문규정 ‘사잇소리 현상’의 모호성과 문법 교과서 ‘사잇소리 현상’의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양순임(2007), 『말소리』, 제이앤씨.
- 오원교(1981), 「사잇소리」에 대하여, 『어문학』 41, pp.47-60.
- \_\_\_\_\_(2000), 사이 스의 소리값, 『어문학』 71, pp.91-106.
- 오정란(1988), 『경음의 국어사적 연구』, 한신문화사.
- 유창돈(1963), [ㄷ] 첨가현상의 연구 -사잇소리 현상고-, 『동방학지』 7, pp.19-39.
- 이강훈(1976), 국어의 복합어 및 한자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음화 현상, 『서울 여자대학논문집』 5, pp.161-196.
- 이관규(2000), 사잇소리 현상과 되소리되기의 학교문법론적 접근,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 이동석(2013),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 『새국어교육』 94, pp.193-224.
- \_\_\_\_\_(2020), 팔종성법의 실현 양상과 음운론적인 해석, 『국어사연구』 31, pp.63-135.
- 이래호(2011), 고등학교 국어 검정 교과서의 ‘음운 규칙’ 관련 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77, pp.355-385.
- 이문규(2003), 국어지식 영역 음운 관련 단원의 내용 검토, 『어문학교육』 27, pp.243-264.
- \_\_\_\_\_(2004), 『국어 교육을 위한 현대 국어 음운론』, 한국문화사.
- 이병운(1994), 형태론적 경계와 음운과정, 『어문교육논집』 13-14, pp.323-347.
- 이윤동(1983), 현대국어 유성음간 무성자음의 강화에 대하여, 『어문학』 43, pp.127-153.
- 이익섭(1955), 『국어학개설』, 민중서관.
- 이진호(2005), 『국어 음운론 강의』, 삼경문화사.
- \_\_\_\_\_(2009), 『국어 음운 교육 변천사』, 박이정.
- \_\_\_\_\_(2014), 『국어 음운론 강의』(개정판), 삼경문화사.
- \_\_\_\_\_(2015), 학교 문법에서의 음운론 내용에 대한 비교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25, pp.305-323.
- \_\_\_\_\_(2021), 『국어 음운론 강의』(개정 증보판), 집문당.
- 이혜숙(2015), 2011 개정 국어과 교과서 음운 변동목록 및 범주화 분석, 『새국어교육』 105, pp.185-216.
- 이화진(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1』 교과서의 ‘음운 변동’ 기술 양상과 문제점 -설명에 제시된 예시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0(3), pp.161-192.
- 임지룡·이은규·김종록·송창선·황미향·이문규·최웅환(2005), 『학교 문법과 문법 교

육』, 박이정.

- 전철웅(1976), 현대 한국어의 경음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_\_\_\_\_(1979a), 음소변동에 관한 일고찰, 『선청어문』 10, pp.65-95.
- \_\_\_\_\_(1979b), 경음화문제 해석의 한 제안, 『국어교육』 35, pp.143-154.
- \_\_\_\_\_(1990), 사이 시옷, 전철웅,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pp.186-194,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 조경하(2005), 현대국어의 사잇소리 현상, 『이화어문논집』 23, pp.5-28.
- 조재옥(1976), 국어의 사이시옷 현상, 『연구논총』 6, pp.75-84.
- 주대환(2020), 한국어 복합어의 경음화현상 재분석, 『인문사회과학연구』 28(1), pp.218-237.
- 최경봉·김윤산·이동식·주세형(2017), 『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육론』, 창비교육.
- 최남희(1995), ‘사잇소리’에 대하여, 『한말연구』 1, pp.219-242.
- 최운현(2006), 사잇소리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우리말 음운 연구의 실제』, 경진문화사. pp.7~25.
- 최현배(1937), 『우리말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 \_\_\_\_\_(1968), 『새로운 말본』, 정음사.
- 하세경·문양수(2005), 국어의 사잇소리 현상과 최적성 이론, 『언어학』 41, pp.267-303.
- 유창돈(1953), 『국문학사요해』, 명세당.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한선희(1987), 복합어 형성에 있어서의 순환적 음운현상, 『고향론집』 2, pp.59-79.
- 한은주(2007), 한국어 명사 합성어의 음운론적 교체에 대한 재고찰, 『언어과학』 14(3), pp.115-135.
- 허웅(1965), 『국어음운학』, 정음사.
- Kim, C. W.(1967), Some Phonological Rules in Korean, 『어문연구』 5, pp.153-177.
- \_\_\_\_\_(1970), Boundary phenomena in Korean, *Research on Language and Social Interaction* 2(1), pp.1-26.
- Kim, Y. K.(1975),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탑출판사.
- <자료>
- 이영철(1948), 『중등 국어 문법』, 을유 문화사.
- 이희승(1949a), 『초급 국어 문법』, 박문출판사.
- \_\_\_\_\_(1949b), 『고등 문법』, 박문출판사.
- 정인승(1949), 『표준 중등 말본』, 아문각.
- \_\_\_\_\_(1956), 『표준 고등 말본』, 신구문화사.
- \_\_\_\_\_(1968), 『표준 문법(인문계 고등학교)』, 계몽사.

- 이원구·이은문(1966), 『표준 중등문법』, 수학사.
- 이용주·구인환(1967), 『중학교 국어문법』, 범문사.
- 이은정·한인석(1967), 『중학 표준문법』, 지림출판사.
- 이을환·이응호·이인섭(1967), 『중학문법』, 사조사.
- 강운호(1968), 『정수 문법』, 지림출판사.
- 이명권·이길록(1968), 『문법』, 삼화출판사.
- 이은정(1968), 『우리문법』, 문천사.
- 이을환(1968), 『인문계 고등학교 최신 문법』, 양문사.
- 이인모(1968), 『새 문법』, 영문사.
- 이길록·이철수(1979), 『문법』, 삼화출판사.
- 허웅(1968), 『표준문법』, 신구문화사.
- 김완진·이병근(1979), 『문법』, 박영사.
- 성균관 대학교 대동 문화 연구원(1985b), 『고등 학교 문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 대학교 사범 대학 국어 교육 연구소(1996), 『고등 학교 문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동아.
- 박영목 외 5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천재교육.
- 윤여탁 외 8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미래엔.
- 이남호 외 9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비상교육.
- 이삼형 외 8인(2012),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 지학사.
- 박영목 외 4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천재교육.
- 윤여탁 외 9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미래엔.
- 이관규 외 6인(2014a),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 이관규 외 6인(2014b),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도서』, 비상교육.
- 이도영 외 6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창비.
- 이삼형 외 8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지학사.
- 한철우 외 7인(2014),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학사.
- 민현식 외 6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방민호 외 5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미래엔.
- 이관규 외 6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비상.
- 이삼형 외 5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지학사.
- 최형용 외 8인(2019), 『고등학교 언어와 매체』, 창비.

---

이 동 석

전자우편 : dsdslee@knue.ac.kr

---

## &lt;국문초록&gt;

## 사잇소리 현상에 대한 비판과 대안

이 동 석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문법에서는 ‘넷가’의 발음을 대개 ‘ㅅ’이 첨가된 후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허웅(1968:162)에서 사잇소리 첨가 이후 여러 음운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한데 모아 사잇소리 현상이라고 부르면서 학교 문법에 사잇소리 현상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하나의 음운 현상으로 볼 수 없다. 현재의 사잇소리 현상은 첨가 현상과 교체 현상이 뒤섞여 있어서 음운 현상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도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잇소리 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잇소리 현상을 해체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첨가 현상과 교체 현상을 분리해야 하는데, 첨가 현상으로는 ㄷ 첨가 현상과 ㄴ 첨가 현상이 분석되고, 교체 현상으로는 비음화 현상, 유음화 현상이 분석된다. 이 중 ㄷ 첨가 현상은 그동안 학교 문법에서 다루지 않았던 현상이지만, 음운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ㄷ 첨가 현상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

- **핵심어** : 경음화 현상, 된소리되기, ㄴ 첨가, ㄷ 첨가, 학교 문법, 문법 교육, 음운 현상, 음운 변동



<abstract data type>

## Criticism and Alternatives to the Sait-sori Phenomena

Lee, Dong-Seok

Until the 1960s, in school grammar, it was considered that the pronunciation of 'narga' is usually derived from the tensification after 'ㄸ' is inserted. However, in Heo Woong(1968:162), the sait-sori phenomena was introduced into school grammar by collecting the cases in which various phonological phenomena occur after the addition of sait-sori and calling it the sait-sori phenomena.

However, since this phenomenon is not a single phenomenon, it cannot be regarded as a single phonological phenomenon. The current interstitial phenomenon is a mixture of insertion phenomena and replacement phenomena, so there is a problem in classifying the types of phonological phenomena.

The only way to solve this problem of sait-sori phenomena is to deconstruct the sait-sori phenomena. Specifically, the insertion phenomena and the replacement phenomena should be separated. As the insertion phenomena, the t insertion and n insertion are analyzed, and as the replacement phenomena, the nasalization and lateralization are analyzed. Among these, the t insertion has not been dealt with in school grammar so far, but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the phonological phenomenon, it is necessary to learn about t insertion.

- **Key words** : tensification, glottalization, n insertion, t insertion, school grammar, grammar education, phonological phenomena